PGA Q스쿨 양용은 무난한 출발

이븐파 공동 24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등용문인 퀄리파잉스쿨에 출전한 양용은(34·게이지디자인)이 첫날부터 발걸음이 가벼웠다.

양용은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PGA웨스트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2개와 버디 2개로 이븐파 72타를 쳐 공동 24위에 자리를 잡았다.

10번홀을 출발한 양용은은 15번홀(파5)에서 버디를 뽑아냈다가 2번(파4), 6번홀(파4)에서 잇따라 보기로 주춤했지만 7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했다.

한국인 4번째 PGA 투어 입성에 도전한 양용은은 163명이 출전해 6라운드의 격전을 벌이는 '마라톤 테스트'의 '탐색전'을 무난하게 마친 셈.

퀄리파잉스쿨 '재수생'인 위창수(34·테일러메이드)는 1오버파 73타로 공동 44위에 그쳤고, 기대를 모았던 재미교포 앤서니 김(21)은 2오버파 74타로 공동 59위로 처졌다.

프로 17년차인 스콧 거트셰우스키(미국)가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68타를 쳐 첫날 선두에 나섰다.

퀄리파잉스쿨 30위 이내 입상자는 2007년 투어 카드를 부여받고 나머지는 성적에 따라 2부투어 출전권을 획득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LPGA Q스쿨 첫날부터 '한류돌풍'

최혜정·김인경 5언더 선두

2007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카드 쟁탈전인 퀄리파잉스쿨 첫날부터 '한류 돌풍'이 몰아쳤다.

지난달 30일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의 LPGA인터내셔널골프장(파72)에서 열린 퀄리파잉스쿨 1라운드에서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인 최혜정(24)과 김인경(18·한영외고)이 5언더파 67타를 쳐 나란히 공동 선두에 나섰다.

2001년 국가대표 상비군을 지낸 최혜정은 작년과 올해 2년간 LPGA 2부투어에서 뛰었지만 LPGA 투어 직행 티켓을 따지 못해 이번에 퀄리파잉스쿨에 출전했다.

2004년 국가대표 상비군에 이어 작년 US 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한 김인경은 아직 아마추어 신분이지만 투어 카드를 따면 프로로 전향할 예정인 기대주다.

재미교포 아이린 조(26)가 4언더파 68타로 공동3위를 달렸고, 이나리가 3언더파 69타를 때려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골프 상금랭킹 4위 문현희(23·휠라코리아)도 2언더파 70타로 재미교포 앤젤라 박(18)과 함께 공동11위에 올랐다.

조아람(20)과 민나온(18), 제인 박(19) 등은 1언더파 71타로 공동22위에 자리 잡아 상위권 입상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은희(20·LIG-김영주골프)와 김혜정(21·LIG-김영주골프)은 이븐파 72타로 공동35위에 그쳐 발걸음이 다소 무거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동환 일본 프로골프 투어 신인왕

국가대표 출신 골프 기대주인 이동환(19·고려대·사진)이 2006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 신인왕이 됐다.

이동환의 아버지 이금철(50)씨는 이동환이 내달 4일 도쿄의 ANA호텔에서 열리는 JGTO 시상식에서 신인상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시다마트로피를 받는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JGTO 신인상은 작년 장익제(33·하이트)가 받은데 이어 한국 선수가 2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

이동환은 올해 3월 JGTO 퀄리파잉스쿨에서 조건부 시드를 획득하면서 투어에 데뷔, 18개 대회에 출전해 톱10에 4차례 들었고, 상금 랭킹 43위에 올라 내년 풀시드권을 획득했다.

이 씨는 "프로 3년차 이내의 신인 선수 중에 우승자가 없는데다 이동환의 성적이 좋아 신인상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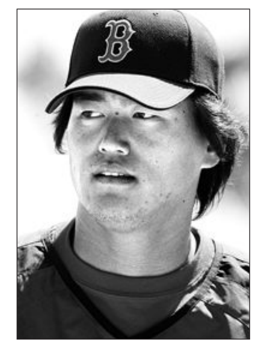
이동환은 2004년 일본아마추어선수권대회에 출전해 한국 선수로는 처음이자 대회 최연소(17세 3개월)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나를 막을자 없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06 산업은행배 농구대잔치 남자부 결승 고려대와 중앙대의 경기에서 중앙대 박상오가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희섭 2년 195만달러

MLB 탬파베이와 계약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마이너리거 최희섭(27·전 보스턴 레드삭스)이 내년 시즌 광주일고 2년 선배인 서재응(29·탬파베이 데블레이스)과 같은 팀에서 뛰게 됐다.

최희섭의 에이전트인 이치훈씨는 지난달 30일 최희섭이 탬파베이와 2년간 총 195만달러 규모의 스플릿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희섭은 내년 초 스프링캠프 때 초청선수(non-roster invitee) 자격으로 참가해 기량을 인정받으면 메이저리그 계약을 유지하고 마이너리그로 내려가면 마이너리그 계약을 적용받는다.

오는 2008년에는 구단 옵션이 걸려 있고 최희섭이 구단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자유계약선수로 풀릴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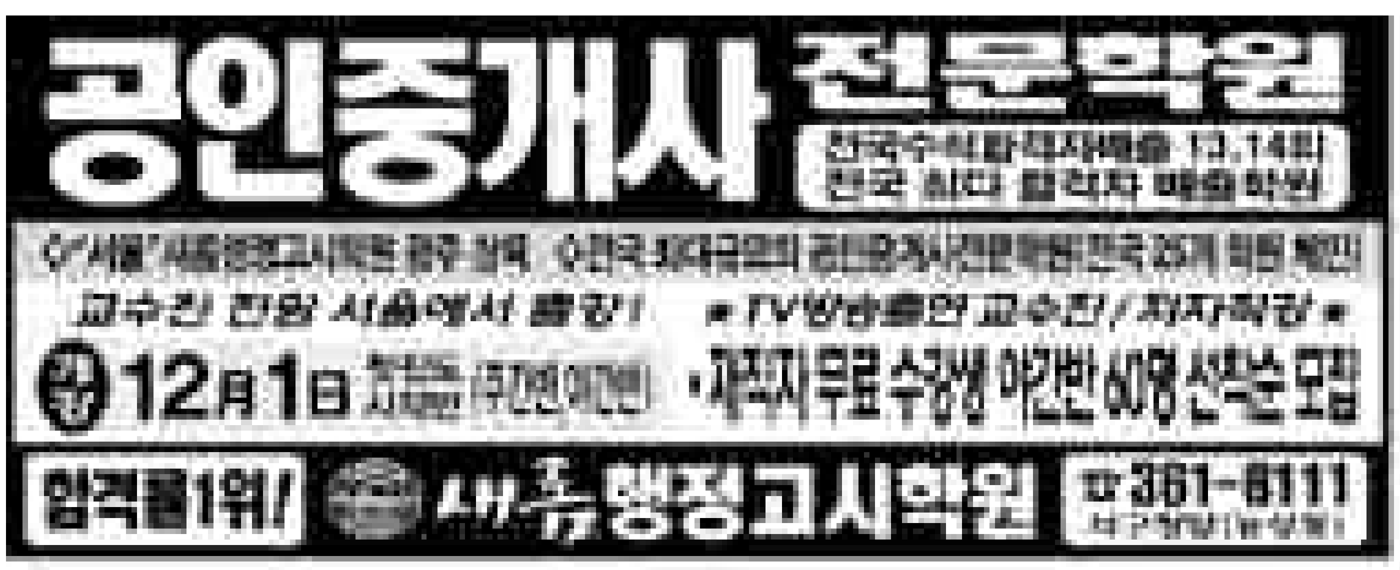
최희섭이 스프링캠프에서 강한 인상을 남겨 메이저리거로 승격되면 서재응과 함께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지난 1995년 광주일고에서 1학년생으로 당시 3학년이던 서재응, 2학년이던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과 청룡기 우승을 합작했던 최희섭은 올해 초 서재응과 다저스에서 한솥밥을 먹을 기회를 잡았지만, 3월25일 보스턴으로 트레이드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올해 무릎 부상 여파로 보스턴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포터킷 레드삭스 66경기에 출장, 홈런 8개 등 타율 0.207, 27타점에 그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포츠중계

1일(금)

▲프로농구〈오리온스-KT&G〉(18 : 50·SBS스포츠), 〈SK-동부〉(18 : 50·Xports)

2일(토)

▲분데스리가(04 : 30·MBC ESPN)